



순창군이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 중인 여성친화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여성들의 정책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순창군, 여성친화 정책 만족도 ↑

강천산 주차장에 파워더 룸·수유실·위험지역 가로등 추가 설치

순창군이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 중인 여성친화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여성들의 정책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올해로 3년차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는 5개 분야에서 진행되던 60개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개 사업으로 집중해 추진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이미 마무리된 18개 사업을 제외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여성이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에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2018년까지 20개 사업에 모두 59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여성 50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어느 지역 보다 현장감 있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이다.

군은 지난해에는 군의 대표관광지인 강천산 주차장에 파워더 룸과 수유실을 별도로 갖춘 여성들만의 화장실을 신축했다. 주말에는 하루 3만명 이상이 하루에 방문하는 점을 감안해 여성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여성친화 지역으로써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

또 설문조사 결과 여성들의 건의했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위험지역에 CCTV 5대와 가로등 17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부터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 여성이 안전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갖춘다.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마더박스 지원, 터미널 수유실 설치를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도 조성했다. 실제 순창군은 지난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신

생아수가 증가했다.

이외에도 군은 지난해 여성친화공간 오픈, 신한옥형 공립어린이집 신축, 여성우선 주차구획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는 20개소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벨 설치 사업을 추진해 여성안전 환경을 강화하고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개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민속마을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파견지원 사업 등을 진행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실정을 감안해 꼭 필요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원격검침 시스템 전면 도입·운영

올해부터... 수도 사용량 실시간 파악 가능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상수도 검침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검침 시스템을 올해부터 전면 도입·운영한다.

원격검침은 직접 가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계량기 및 통신장비를 활용해 수용가의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침방식이다.

군은 시스템 도입에 앞서 지난해 1년동안 100점에 대해 시범운영해 좋

은 성과를 얻었으며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는 담당부서 및 위탁기관에서 읍면을 순회하며 사업설명 및 주민 협조사항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은 수용가 2만4000점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사전조사를 거쳐 오는 23일 고창읍, 27일 고수면을 시작으로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하며 완료된 읍면부터 1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가 오는

10월이면 14개 읍·면에 설치할 계획이다.

원격검침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용가가 직접 요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디지털계량기 교체작업은 위탁업체 직원들이 고창군 상수도 원격검침 조개를 착용하고 각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마을 이장이 동행하며 계량기 주변 적치물 정리 등 수용가의 협조가 요구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여기행이나 갈까?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천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담은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풍경이 절정에 이릅니다.

임실군

임실군 청사 에너지 절약 '우수'

243개 지자체 대상... 전기사용량·난방온도 점검 결과

임실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청사를 대상으로 전기사용량과 난방온도 준수를 점검한 결과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사용량의 경우 전년도 대비 평균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군은 10% 이하 감소 실적을 거둬 그동안 노력이 빛을 뿜는 평가이다.

군청사는 지난 2010년 준공 이후 소비전력 절감을 위해 창호 외피 개선, 옥상 녹화조경, LED등 교체, 지열추열조 인버터 설치 등 총 5억7천5백만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올해 지역에너지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4억8백만원을 지원받아 태양광설치가 완료되면 10% 이상의 전력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2014년 7억, 2015년 10억, 2016년 9억 3천만 원 총 26억의 교부세를 확보해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 현상과 자원고갈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과 설비투자로 청사 에너지 절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을 추진했다.

특히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2014년 7억, 2015년 10억, 2016년 9억 3천만 원 총 26억의 교부세를 확보해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 현상과 자원고갈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과 설비투자로 청사 에너지 절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선정

임실군은 농촌지역 생명사랑 녹색마을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생명보원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사)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충동적 음독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맹독성 농약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한다.

임실읍 노전리, 마전리와 신덕면 학산리, 불엽리 4개 마을 487가구가 대상이다.

지난 21일 노전리 마을회관에서 10여명의 대상자가 참여한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진행됐으며 안전보관함 배포,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 등을 거쳐 오는 5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우울감사 등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고위험군 사례관리, 농약안전보관함 사용 모니터링 등 꾸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허브산업의 발전 방안 마련 위한 워크숍

추진성과 설명 등 진행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는 남원시 관내 허브 및 화장품 업체 대표와 허브 관계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하였던 허브관련 R&D 연구결과와 2015~2016년 추진한 허브제품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성과물을 공유하여 허브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남원 예촌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김정 사업단장의 허브산업이 현재 선택과 집중단계(서양 허브 기반에서 자생허브 기반으로 전환)를 거쳐 안정과 성장의 단계에 있으며 힐링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과 지리산

허브밸리에 펼쳐질 미래 비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남원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허브산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외송의 기능성 검증을 수행했던 기능성평가연구소 '인비보'에서 외송의 함당도 효과 및 활용방법에 대해 업체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세미나실 뒤편에는 허브식품융복합산업화사업을 통해 추진했던 허브차, 디퓨저, 허브식초, 허브묵, 허브비누 등의 허브제품개발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전시를 하여 워크숍에 참석한 허브기업 및 관련자들에게 허브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홍보하는 자리 또한 마련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아토피 예방교실 실시

순창군이 주거환경 및 식생활 등의 변화로 아토피질환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관리와 증상 완화를 돕기 위한 아토피예방교실을 실시한다고 밝혀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예방교실은 아토피 환자 및 가족 등 30명을 대상으로 4월 7일과 14일 총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토피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이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요령, 환자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복분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 본격화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복분자를 활용해 생산과 가공, 유통, 관광을 아우르는 지역특화산업을 추진한다.

군은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길수 부군수를 사업단장으로 '고창 복분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을 구성했다.

'고창 복분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국비 15억원 등 총 30억원을 투자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창 복분자를 1·2·3차 산업화해 생산·가공·유통·관광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문인력 영입으로 건설한 사무국 운영과 복분자 창업교육, 체험공

방 운영, 장터 운영, 계절별 미니축제 등 총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람 찾는 논촌' 제 값 받는 농업 등 사람 중심의 삼락농정 실현과 고창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에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전북도관광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길수 부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복분자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업체와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창군이 명실상부한 복분자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복흥면, 신소득 작물 '봄배추'

순창군 복흥면이 봄배추를 신소득 작물로 육성하기로 하고 계약재배와 이모작 등을 추진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복흥면에는 47농가가 112ha에서 봄배추를 재배한다. 지난해 비해 52ha 192%가 증가한 면적이다. 특히 복흥면 봄배추는 10a당 180만원으로 계약재배를 추진해 농가에게 안정적 소득원이 될 전망이다.

또 봄배추 수확 후 후작으로 콩을 재배해 벼 대체작목으로 농가소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복흥면에서 봄배추 올해 예상 생산량은 10,584톤으로 20억 16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벼농사의 경우 10a당 112만원 소득이 예상되나, 봄배추 재배 후 콩을 재배할 경우 294만5천원의 소득으로 벼농사 보다 2배 이상 소득이 예상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